

유명 비보이 크루 30팀 전주시 격돌

‘제15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 5월 13~1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 국내 유일 팀 배틀

제15회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다음 달 13~14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전주시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비보이 크루 약 30개 팀이 이를 동안 열리는 이 대회에서 총 2000만 원의 우승 상금을 놓고 격돌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시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비보이팀 ‘라스트포인’이 이번 대회의 기획과 홍보는 물론이고 진행까지 맡기로 했다.

시는 전주비보이그랑프리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 비보이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1세대 비보이부터 현역 비보이와 비걸 등 총 5명을 심사위원으로 초청했다.

메인 DJ는 대한민국 비보이 배틀 현

장의 베테랑 DJ인 WRECKX(최재화)와 ZEASTY(임석용)가, 사회는 비보이 대회 전문 MC인 SNIPA(박재민)와 DU LOCK(정상현)이 각각 맡는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우승 상패와 함께 1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는 등 수상자들에게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대회에서는 화려하고 흥겨운 특별무대가 준비됐다.

본선 오프닝 공연에 심사위원 5명의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심사위원 쇼케이스가 열린다.

2015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베이스’와 개성 있는 실력과 래퍼 ‘래원’, 2021 스트릿우먼파이터 우승팀인 ‘홀리밴’, 독창적이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2020년 BBC WORLD FINAL 대상을 받

은 ‘독특크루’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특별 게스트 공연도 펼쳐진다.

대회는 전 세계 온라인 라이브 생중계와 함께 JTVC 전주방송국의 본선 대회 녹화중계가 예정돼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 전주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포함해 총 500~800명이 관람할 수 있도록 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난 2007년 첫 선을 보인 전주비보이그랑프리가 국내 유일의 팀 배틀 형식의 대회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비보이 문화의 역사를 다시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이가 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비보이 문화를 함께 즐기고 꿈을 키우게

돼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야호 프로젝트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주비보이그랑프리는 라스트포인이 독일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07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 달 7일 전주우진문화공간에서 ‘라스트포인 20주년 기념 2대2 브레이킹 배틀 대회’가 열린다.

대회 공동위원장인 황권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브레이킹 종목이 2024년 파리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전주시와 라스트포인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본 대회 주관 단체인 라스트포인과 협력해 최고의 무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와 동행”

전북지역 대학생·청년 1111명, 지지선언

전북지역 대학생·청년 1111명이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20일 전북지역 대학생·청년 1111명은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조지훈 예비후보와 동행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삼보일배’를 통해 전주를 땀으로 적시겠다는 진심으로 호소하는 모습과 청년 공약을 보면서 대학생과 청년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전주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며 조지훈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배움을 이어갔던 후보로, 가장 먼저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실패도 성공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대학생·청년 1111명은 “사심 없이 일하는 전주사람이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증명하고 싶다는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의 간절함에 동행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며 전주시민들에게 “청년들이 전주에서 꿈을 키우고 전주의 일꾼으로 자랑스럽게 성장할 수 있



전북지역 대학생·청년 1111명이 더불어민주당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청년의 미래를 키우는 도시, 전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학생·청년 1111명은 전주시장 선거에 나선 다른 후보의 ‘전주의 문제가 패배주의다’, ‘지나치게 꿈이 작다’ 등의 발언을 지적한 뒤 “우리는 패배주의자도, 꿈도 절대 작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언이나 준비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으로는 대학생과 청년들의 마음을 절대 잡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윤상기자

‘책여행, 발견하는 기쁨’ 전주독서대전

9월 30일~10월 2일까지 강연·공연·학술토론·북마켓 등 진행

전주시가 ‘책여행, 발견하는 기쁨’이라는 주제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한벽문화관과 완판문화관 일원에서 ‘2022 전주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전주시는 도서관, 독서, 문화, 교육, 서점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022 전주독서대전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주제는 코로나19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책으로의 여행이 시민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주고 활기찬 일상회복의 전환점이 되길 바라는 의미에서 ‘책여행, 발견하는 기쁨’으로 정해졌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전주독서대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행사를 전환한 이후 2년여 만에 전면 대면 행사로 시민들을 찾게 됐다.

이번 독서대전은 △추억의 만화방

‘만덕방’ △우리 집 헌책 플리마켓 ‘한 평 책방’ △독서대전에서 특별한 하룻방 △길거리 책 운동회 △독서동아리와 함께하는 ‘100인 100책 독서토론’ △열린 시민 토론회 △만나고 싶은 지역 작가와의 ‘책 수다’ 등 직접 시민들이 함께 여행을 하듯 함께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된다.

추진협의회는 이밖에도 독서대전을 성공적인 책 축제 만들기 위해 △가족 단위의 체험형 프로그램 △온라인 콘텐츠 활용 사업 △청소년 참여 프

그램 △비문학 강연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향후 추진협의체 및 실무기획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정할 예정이다. 특히 주제와 부합하는 초청작가 강연, 독서 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최라기 전주시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장은 “전주를 가보고 싶은 책 여행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전주독서대전을 책 읽는 즐거움을 맡겨 누릴 수 있는 명품 책 축제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선정된 주제를 뒷받침할 희망과 미래를 찾을 수 있는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노후화된 팔복산단 등 북부권 개발할 것”

유창희 전주시장 예비후보

유창희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노후화된 팔복산단 재개발과 북부권 개발을 통해 전주·완주 경제공동구역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공약했다.



의미다. 그는 팔복동 산업단지 신도시가 조성되면 북부권의 배후 주거지로 조촌동, 동산동 일대가 새 생활권역으로 떠오르고 북부권역에는 이

케아를 비롯한 대형 유통매장과 놀이시설, 체험 공간과 스포츠레미파크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전주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후보는 “북부권이 개발되면 전주·완주 공동경제구역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1단계로 역시 노후화와 제조업 중심으로 거의 활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재개발, 북부권의 신도시로 조성하겠다”

/김윤상 기자

복지향상 위한 맞춤형 장애인 공약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복지향상을 위한 장애인 맞춤형공약을 내놨다.

우 후보는 이날 ▲전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전주시립예술단에 장애인팀 신설 ▲스포츠 바우처 제도 도입 ▲장애인용 승차 설비를 비롯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표준직업장 지원 ▲장애인의 공공일자리 대폭 확충 ▲장애인들의 재능을 살리는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을 약속했다.

특히 일자리 공약은 우 후보의 ‘전문현답’을 통해 전주시 장애인 부모회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것으로 노동권,



생존권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들의 자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 후보는 “현재 대다수 장애인 일자리가 단순업무나, 반복업무에 치중돼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각자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장애인 유형별 일자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표준직업장을 확대해 업무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청 수영부 선수단, 전국대회 단체전 1위

제17회 제주하라배 전국수영대회 은 3, 동 1, 혼계영 400m 금메달

전주시청 수영부 선수단이 지난 12~17일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열린 제17회 제주하라배 전국수영대회에서 개인전 은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혼계영 400m 금메달 획득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서 수영 국가대표인 문승우 선수가 점영 50m 경기와 점영 100m 경기에서 각각 은메달을 획득했고, 배영 100m 경기에 출전한 박성웅 선수도 은메달을 차지했다.

특히 혼계영 400m 경기에 출전한 수

영부는 3분42초64의 경기기록으로 제주하라배 전국수영대회 신기록을 수립하며 금메달을 따냈다.

혼계영은 4명의 선수가 모두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야 순위에 들 수 있는 경기다.

김성수 전주시 체육산업과장은 “전주시의 위상을 드높여준 수영부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하고, 수영부 김홍량 감독의 지도 아래 선수 모두가 발전하는 한 해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노인문화 선도’ 전주시 노인회관 개관

노인대학·노인취업지원센터 등 갖춰

전주시 노인회관 개관식이 20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영배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개관식은 전주한옥마을 농악공연단의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현관테이프커팅, 기념비제막식, 자동차 기증식, 전영배 전주시지회장 기념사, 김승수 전주시장 축사, 축하떡 절단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는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의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노후하고 협소한 효자동 건물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쾌적한 진북동 인근으로 노인회관을 옮겼다.

총 예산 62억 원이 투입된 새 노인회관은 연면적 4023.82㎡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다. 1~3층에는 노인대학, 강당, 다목적실 등이, 4층에는 노인취업지원센터가, 5~7층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간이 배치됐다.

시는 현대화 시설로 쾌적해진 노인회관을 통해 노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주시 노인회관 개관식이 20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전영배 (사)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노인회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권익증진과 복지향상의 구심점이자 사회활동 참여와 정보를 나누는 지역 허브 공간

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노인회관이 전주시 노인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해외수출기업 위한 간담회 개최

전주시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수출판로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2년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시는 지난 19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술교육동 3층 세미나실에서 이 사업 협력기관인 코트라 전북지원단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관계자, 해외수출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수출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설명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시는 올해 기업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과 함께 시비 5억 원을 투자해 4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세부사업으로는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 전시회 단체참가지원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 △해외 비즈니스 출장지원 사업 △온라인플랫폼 활용 마케팅 지원 △해외마케팅 아카데미 운영 △수출 물류비 지원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올해 시가 신규로 직접 추진하는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생산비 부담경감을



통해 기업에 보다 실용성 있는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밖에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의 경우 항공비 운임만을 지원했던 기존과 달리 올해는 통역비를 포함해 업체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트라 전북지원단이 추진하는 무역사절단 사업은 시장규모가 크고 한국 선호도가 높은 중국(정저우), 일본(오사카) 등 아시아 무역관뿐 아니라 올해는 오스트리아 등 유럽 무역관을 신규 활용해 선진국 바이어와의 접촉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추진하는 해외전시회 단체참가지원의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오프라인 전시회 참가를 통해 현장에서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높은 계약 성공률을 꾀하고 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이 대한노인회로부터 노인복지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강동화 의장, 대한노인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노인회관이전·복지정책기여 공로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인후·2,금암1·2, 진북동)이 대한노인회(회장 김호일)로부터 노인복지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노인회는 20일 전주시지회의 신청사 건립을 맞아 열린 개관식에서 강 의장의 전주시 노인회관 이전에 대한

도움과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책 지원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강동화 의장은 “어르신들을 섬기고 아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